

터키 참전이 이라크 전쟁에 미치는 영향

□ 터키, 북부전선을 통해 이라크 진입

- 1,000명이 넘는 터키군 특수부대가 이라크 북쪽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변수로 관심을 끌고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영국과 호주가 참여하고 있으나, 터키의 참여는 미국을 도와 후세인 정권 타도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터키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을 제어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한 것이며,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쿠르드족 문제로 전쟁에 참여할 것을 고고여히 바쳐왔던 터키의 태도가 미국에 대: ... 로 보임.

□ 터키의 참전배경

- 터키 정부는 전쟁발발 전부터 이라크에 거주하는 터키계¹⁾ 보호와 이라크로부터 대량 난민이 터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음.
-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이유보다는 이라크 북부에 거주하는 약 35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독립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터키의 의도임. 터키 정부는 이라크의 쿠르드족의 위상 변화가 바로 인접한 자국 내에 1,200만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의 동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1) 터키정부는 이라크에 거주하는 터키계가 3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쿠르드족은 45만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

- 터키는 쿠르드족이 북부유전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유전의 收入이 쿠르드족의 독립기반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 쿠르드족들은 터키가 북부지역 유전을 탐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쿠르드족의 입장

-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지에 분포하며 약 3,000만 명 안팎의 인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족은 이란, 터키 등 강대국의 반대에 막혀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타민족의 탄압에 시달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이라크 내에서는 키르쿠크, 모술 등 북부 유전밀집 지역에 거주해 왔으나, 후세인 정권이 수니파 회교도 이주정책을 펴면서 쿠르드족들은 토지와 재산을 빼앗기고 주변 산악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음. 그러나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미·영 연합군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 쿠르드족들은 북부지역에서 자치권을 유지해 왔음.
- 이번 전쟁 이후 쿠르드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독립국가 건설이나, 이라크가 민족 및 종교에 따른 연방국가로 재편될 경우 자치권을 갖는 연방의 일원으로 남는 것도 차선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주장은 일단 접고 미군의 지휘를 받으며 미국의 對 이라크 전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전후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과 터키의 미묘한 입장차

- 미국은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해 터키를 통한 북쪽전선의 활용을 추진해 왔으나, 터키의 비협조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미국은 6만 2,000명의 지상군이 통과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터키에 대해 1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지난 3월 1일 실시된 미군주둔안의 의회표결이 비등한 반전여론 분위기에 편승하여 예상 밖으로 부결되었음.

- 그 이후 시간에 쫓긴 미국의 압박으로 터키 의회는 전쟁이 시작된 3월 20일에야 항공기의 영공통과만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지상군 통과는 물론 공격목적의 터키 공군기지 사용도 불허한 터키 정부는 영공통과만을 허용한 이후 미국이 터키에 약속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아직도 유효하며, 터키의 국익을 위해 터키군이 이라크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합의하였다고 밝혔음.
-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음.

□ 터키, 쿠르드족, 미국의 향후 관계

-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키르쿠크와 모술의 탈환을 위해 이라크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은 터키군이 진주할 경우 터키와의 일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미국은 지상군 진입 좌절로 북부전선에는 항공수송을 통한 소규모 輕무장 병력만을 제한적으로 전개시킬 수밖에 없었음. 이런 상황에서 양측간 교전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양측을 통제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북부전선 작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통적으로 쿠르드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도 터키군의 진격과 그에 따른 이라크 북부지역의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입장에서 긴밀한 군사협력관계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터키와, 이번 전쟁의 역할이 인정되고 미국에게 전쟁명분 중 하나가 된 쿠르드족

의 인권보호를 고려할 때 쉽사리 어느 편을 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라크에 진입한 터키도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쿠르드족 탄압에 나서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보임.
- 미국이 후세인 이후의 질서재편 방식으로 북부 쿠르드지역, 중부 수니파 지역 및 남부 시아파지역 등 민족과 종교에 따른 연방구성에 나선다면 약소민족인 쿠르드족은 그 어느 때보다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지역 확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